

대한민국: 유엔 전문가, 오랜 인권침해사건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과도기적 사법 절차 촉구

서울(2022년 6월 15일)-

살비올리 유엔 전문가는 오늘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한국에서 폭력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희생당한 수천 명의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라고 촉구했다.

파비안 살비올리(Fabián Salvioli)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유엔 특별보고관은 7 일간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며 “방문하는 동안 식민지배, 전쟁, 점령, 그리고 근 40 년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또 “단 한 건의 비극도, 한 명의 희생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인권 보호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방문 말미 성명에서 20 세기에 국가를 강타한 격동의 사회정치적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다양한 행위자와 정치 단체가 인권과 인도법을 수도 없이 여러 형태로 위반하는 사태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경우에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전쟁과 권위주의 체제로 신음하며 수 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고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그러나 공고한 민주화가 피해자들의 오랜 불만과 치유와 화해에 대한 사회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별보고관은 진실 추구와 기념 사업을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를 인정했다. 그는 또 "정부가 모든 위반행위와 모든 피해자의 고통을 적절하게 조사하고, 인정하고, 기념하는 포괄적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살비올리 특별 보고관은 정부가 제한된 범주의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일부 인권 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개시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재활 서비스와 명예 회복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배상, 보상, 만족 및 재활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희생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절차를 시급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고령을 감안하면 배상과 명예회복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치안 부문 및 관련 규정의 개혁에 진전이 없는 점과,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의 부재,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특정 범주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살비올리 특별 보고관은 "인권 침해 가해자를 조사, 기소 및 제재하고 과거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의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피해 인정과 명예 회복을 위해 기울인 피해자 협회, 시민 사회 단체, 학계 및 정부 기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 "잔혹 행위와 그 희생자수가 엄청난 규모이므로 이번 업무가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나 그만큼 이 보고가 치유와 화해에 중요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방문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리, 시민 사회 및 인권 단체 대표, 희생자 및 생존자들을 만났으며 기념관, 구금 시설, 대규모 매장지 및 발굴 장소등을 방문했다.

특별보고관은 2023 년 인권이사회를 방문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끝

파비안 살비올리 (아르헨티나) 특별보고관은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장에 관한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인권 변호사이자 교수다. 파비안 살비올리 (Fabián Salvioli)는 라플라타 대학교(University of La Plata) 법학대학에서 국제법 및 인권 관련 강좌를 맡고있다. 그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전역의 많은 국가와 대학에서 강의했다. 살비올리 교수는 국제 인권법에 관한 여러 책을 저술하고 기사를 썼다.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인권 위원회의 위원이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동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우호적합의 메커니즘 내에서 금전적 배상에 관한 임시 중재 법원의 위원을 두 번, 의장을 세 번 역임했다. 또한 인권과 교육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명예 칭호를 받았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로 알려진 기구의 일부로 기능한다. 유엔 인권 시스템에서 가장 큰 독립 전문가 단체인 특별 절차는 특정 국가의 상황이나 전 세계의 주제별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의 독립적인 사실 조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총칭이다. 특별 절차 전문가는 자원봉사자다. 그들은 UN 직원이 아니며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정부나 단체와도 무관하며 각자의 역량별로 봉사한다.

유엔 인권 국가 페이지: [대한민국](#)

추가 정보 및 보도 관련 질문시 연락처:

업무 기간 중: Ms. Melanie Santizo (+41 079-444 4702 / melanie.santizosandoval@un.org)

업무 기간 후: Ms. Brenda Vukovic (+41 22 917 9635 / brenda.vukovic@un.org)

기타 다른 유엔 독립 전문가에 관한 보도 관련 질문시 연락처: Dharisha Indraguptha (+41 79 506 1088 dharisha.indraguptha@un.org) 또는 Renato Rosario De Souza (renato.rosariodesouza@un.org)

유엔 독립 인권 전문가 관련 트위터 뉴스 주소: @UN_SPExperts.